

바깥에 나오자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몹시 추웠지만 땀을 지독히 흘렸기 때문에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또 다른 호텔 같은 데 가서 피비의 돈을 써버리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결국 렉싱턴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랜드 센트럴 역으로 갔다. 내 가방과 소지품이 전부 그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엔 벤치가 죽 늘어선 대합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계획대로 했다. 얼마 동안은 주위에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고 다리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그 이후의 얘기는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꼬치꼬치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이다. 이건 우울해지니까.

나는 9시경까지밖에 잘 수가 없었다. 수백만의 인파가 대합실로 몰려들어서 다리를 내려놓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나 앉았는데 그놈의 두통은 조금도 덜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이었

다. 또 그때처럼 우울해진 것은 내 평생에 한 번도 없었다.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앤톨리니 선생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부인이 내가 그곳에서 자지 않은 것을 알면 선생이 뭐라고 말할까 생각했다. 그 점은 그다지 걱정되지 않았다. 앤톨리니 선생은 머리가 아주 좋은 분이니까 적당히 꾸며낼 것이다. 집으로 가버렸다는니 어쩌니 하고 말할 것이다. 그 점은 그다지 걱정되지 않았다.

정말 걱정이 된 것은 내가 왜 눈을 떴으며, 선생이 내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서 선생이 내게 이상야릇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선생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어루만지기를 좋아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단정할 수 있는가? 그건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행가방을 찾는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설혹 선생이 변태라 하더라도 내게 정말 잘해 준 것만은 확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늦게 전화했는데도 조금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고 싶으면 당장 오라고 하지 않았던가. 또 전혀 귀찮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하지 않았던가. 전에 말한 제임스 케슬이라는 애가 추락사했을 때 시체에 가까이 간 사람도 선생뿐이지 않았던가. 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우울해졌다. 선생때로 되돌아갔어야 옳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선생은 별 이유 없이 내 머리를 어루만졌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더욱 우울해지고 머리가 혼란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눈마저 지독히 아팠다. 잠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눈에 불이 난 것처럼 아팠다. 게다가 감기까지 걸렸는데 손수건 하나 없었다. 물론 여행가방 안에 몇 개가 들어 있었지만 일부러 보관함에서 꺼내어 여러 사람 앞에서 열어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바로 옆 벤치에 누군가 두고 간 잡지가 있었으므로 그걸 읽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앤톨리니 선생과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생각을 없애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읽기 시작한 기사는 내 마음을 더욱 언짢게 만들었다. 그건 온통 호르몬에 관한 것이었다. 호르몬의 상태가 좋으면 얼굴이고 눈이고 모두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 끝은 그 기사에 쓰여 있는 호르몬 상태가 나쁜 인간과 흡사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르몬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에는 암에 걸렸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쓰여 있었다. 입 안에 쉽게 낫지 않는 염증이 있으면 암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징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 입술 안쪽에 난 염증은 2주일이나 된 것이었다. 그래서 암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놈의 잡지는 기분을 암울하게 했다.

나는 잡지 읽기를 멈추고 밖으로 산책하러 나왔다. 이제 암에 걸렸으니 기껏해야 한두 달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다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비라도 내릴 것 같은 날씨였다. 그래도 나는 그냥 산책하러 나섰다. 우선 아침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산책 나선 이유 중의 하나였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비타민을 함유한 음식을. 그래서 싸구려 식당이 있는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걷는 도중 두 사나이가 트럭에서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리

고 있는 곳을 지나갔다. 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 쌍것을 들어올려! 들어올리라니까! 씨이팔!” 하고 소리를 질렀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 사용하는 말치고 그다지 찬란하지는 않았다. 대단히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난 좀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왜냐하면 웃기 시작하자 토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말이다. 막 구토가 시작되었는데 겨우 꿀꺽 참고 위기를 넘겼다. 왜 그랬는지 난 모른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비위생적인 음식 따위를 먹은 것도 아니고 내 위장은 매우 튼튼한 편이다. 어쨌든 토하지 않고 견뎠다. 무언가 먹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싸구려로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 도넛과 커피를 주문했다. 그러나 도넛은 먹지 않았다.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울할 때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 급사는 매우 좋은 놀이였다. 돈을 받지 않고 그것을 도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나는 커피만 마시고 그곳을 나와 5번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날은 월요일인 데다가 크리스마스도 가까웠기 때문에 가게는 전부 문을 열었다. 그래서 5번가를 걷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 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감돌았다. 길 모퉁이에는 털복숭이 산타 클로스가 서서 종을 치고 있었고, 구세군에 소속된 여자들, 그러니까 루즈 따위를 하나도 바르지 않은 여자들도 종을 치고 있었다. 나는 전날 아침 식사 때 만난 그 두 수녀가 있을까 하고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으리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들은 교편을 잡기 위해 뉴욕에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 두 사람을 찾으면서 걸었다.

거리는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열기가 넘치고 있었다. 아이들이 수

백만 명은 되었는데,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시내에 들어와 버스를 타고 내리며 가게에 드나들고 있었다. 나는 피비가 곁에 있었으면 싶었다. 그애는 이제 장난감 상점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날뛰 그런 나이는 지났지만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물결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다. 재작년 겨울이던가? 그애를 데리고 물건을 사러 시내에 나왔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건 블루밍데일 상점에서였다고 기억된다. 우리는 구두 코너로 가서 피비가 비바람이 심할 때 신는 평상화를 사는 척했다. 구두끈 매는 구멍이 1백만 개나 있는 그런 구두 말이다. 그애는 가없는 점원을 미치게 만들었다. 피비가 한 스무 켄레 정도는 신어 보았던 것이다. 그때마다 점원은 구두끈을 위까지 전부 끼워 주어야 했다. 그건 약간 치사한 장난이었지만 피비는 무척 재미있어 했다. 그런데도 점원의 태도는 친절했다. 우리들이 장난삼아 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피비가 줄곧 킁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벅타이고 뭐고 아무것도 매지 않고 5번가를 향해 계속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깨비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길 모퉁이에 이르러 차도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도저히 길 건너편까지 건너갈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몸이 자꾸만 아래로 곤두박질쳐서는 아무도 나를 두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겁이 났다.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바보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다. 와이셔츠고 내의고 온통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길모퉁이에 이르러 매마다 나는 동생 엘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다. “엘

리, 나를 사라지게 하지 마라. 엘리, 나를 사라지게 하지 마. 엘리, 제발 나를 사라지게 하지 마.” 하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지 않고 길 건너편에 당도하자 나는 엘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 길모퉁이에 이르르면 즉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곤 했다. 그래도 나는 계속 걸어갔다. 걸음을 멈추기가 겁났던 모양이다. 사실은 잘 기억할 수가 없다. 동물원을 지나 60번가를 쪽 올라가서야 걸음을 멈춘 것을 기억한다. 그곳까지 가서 나는 벤치에 앉았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여전히 바보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한 시간 가량 앉아 있었을 것이다. 드디어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딘가 멀리 가버리자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학교에도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피비만 만나서 잘 있으라고 말하고 크리스마스 용돈을 돌려 주고 차를 얻어타고 서부로 떠나자고 결심했다. 우선 홀랜드 터널까지 가서 그곳에서 무임승차한 다음 다음 역에서 다른 차로 갈아타고 가면 며칠 안으로 서부의 어느 곳엔가 도착할 것이다.

그곳은 매우 아름답고 햇볕이 따사할 것이고, 나를 알아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어느 주유소에서 차에 휘발유를 넣어 주고 오일을 칠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건 개의치 않기로 했다. 다만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 곳이면 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귀먹은 병어리 행세를 할 참이었다. 그러면 누구하고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든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용건을 종이 쪽지에 써서 보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얼마 후엔 그렇게 하는 것도 귀찮아질 테니까 나는 평생 동안 누구와도 말하지 않은 채 지내게 될 것이다.

모두들 나를 가련한 귀먹은 병어리로 여기고 나 혼자 있게끔 내버려 둘 것이다. 차에 휘발유나 오일을 넣으면 그들은 대가를 지불할 것이고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다.

그런데 오두막은 숲 가까이 있는 게 좋다. 숲속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오두막에 늘 햇빛이 비치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음식은 나 혼자서 요리할 것이고, 그 후 결혼이라도 하고 싶으면 나와 똑같이 귀먹은 병어리인 귀여운 여자를 만나 결혼할 것이다. 여자는 내 오두막에 와서 같이 살게 된다. 그리고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녀도 다른 사람처럼 종이 쪽지에 그것을 써야 한다. 만일 어린이가 생기면 우리는 그 애를 어딘가에 감춰 둘 것이다. 그리고 책을 많이 사주고, 우리 힘으로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지독히 흥분했다. 정말 흥분했다. 귀먹은 병어리 시늉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니 무척 즐거웠다. 어쨌든 서부로 가는 것은 진심으로 결심한 바였다. 우선 맨 먼저 하고 싶은 것은 피비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길을 건너갔다. 사실 말이지 그때 나는 차에 치여 죽을 뻔했다.

나는 곧 문방구에 들어가 편지와 연필을 샀다. 내 생각은 이랬다. 피비에게 잘 있으라는 말을 하고 크리스마스 용돈을 돌려 주기 위해 둘이 만날 장소를 알리는 편지를 쓴다. 그리고 그것을 피비가 다니는 학교로 가지고 가 교장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피비에게 전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편지와 연필을 주머니에 넣자마자 피비가 다니는 학교까지 죽어라고 달렸다. 너무 흥분해 있어서 문방구에서는 편지 같은 걸 쓸 수가 없었다. 피비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기 전에 그 편지를 주고 싶었는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는 이처럼 서둘렀던 것이다.

피비의 학교가 어디 있는지는 물론 잘 알고 있었다. 그전 바로 내가 어렸을 때 다닌 학교였기 때문이다. 학교에 도착하자 내 기분은 좀 이상했다.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분명히 잊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내가 다녔을 때와 똑같았다. 옛날과 다름없이 우천체조장이 있었고 그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공이 날아와 맞아도 깨지지 않도록 전구마다 그물로 씌워 놓았기 때문이다. 마룻바닥에는 경기를 하기 위해 흰 페인트로 원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까지 똑같았다. 또한 그물이 없는 농구대도 예나 다름이 없었다. 백보드와 쇠로 된 링뿐이었다. 그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휴식시간도 아니었고,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은 어린 학생 하나뿐이었다. 흑인 학생인데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애는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허가를 나타내는 나무 판대기 조각을 엉덩이 포켓에 위가 보이도록 찢어넣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이젠 그다지 심하진 않았다. 계단 있는 쪽으로 가서 맨 아래 계단에 주저앉아 아까 산 편지지와 연필을 꺼냈다. 계단에서도 내가 다닐 때와 같은 냄새가 풍겼다. 누가 오줌을 깔긴 것 같은 그런 냄새 말이다. 학교 계단이란 늘 그런 냄새를 풍기는 법이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랑하는 피비에게

이젠 수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오후 무임승차로 서부로 떠나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12시 15분 미술박물관 입구에서 나와 만나다. 네 크리스마스 용돈을 돌려 줄게. 아직 많이 쓰지 않았으니까.....

—— 사랑하는 오빠, 홀든.

피비의 학교는 박물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거기를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 애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다음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주어 피비에게 전달하게 하려고 계단을 올라가 교장실로 걸어갔다. 쪽지는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열 번이나 접었다. 학교라는 곳에선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 법이다. 그러나 내가 피비의 오빠라는 것을 알면 틀림없이 그애에게 전달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나는 갑자기 다시 토할 것 같았다. 결국 토하지는 않았다. 잠시 앉아 있었더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을 목격했다. 누군가가 벽에다 ‘씹하자’라고 낙서해 놓았던 것이다. 이걸 사람 미치게 하는 것이다. 피비나 다른 어린애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애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할 것이다. 어떤 치사한 자식이 그것을 왜곡해서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며칠 동안 걱정해 휩싸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쓴 놈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다. 어떤 변태 성욕자가 밤중에 소변을 보려고 학교에 몰래 들어와 벽에다 그런 낙서를 한 것이 아닐까. 나는 그놈이 그것을 쓰고 있는 현장을 잡아 그놈이 피투성이가 되어 뺨을 때까지 놈의 머리를 돌계단에 짓이기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내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우울해지고 말았다. 사실, 나에게는 그것을 손으로 문질러 지울 만한 용기조차 없었다. 내가 그걸 지우다가 선생에게 들키면 그들은 내가 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것을 지워

버리고 말았다. 그런 다음 교장실을 향해 계단을 올라갔다.

교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백 살은 되어 보이는 늙은 여자가 타자기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4B-1에 있는 피비 쿨필드의 오페라고 말하고 그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중요한 편지이며 어머니가 아파서 피비의 점심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피비와 만나 드럭 스토어로 점심을 같이 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늙은 부인은 몹시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내게서 편지를 받아 옆방에서 또 다른 부인을 불러 그 부인이 편지를 전하도록 조치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백 살은 되어 보이는 그 부인과 나는 잠시 잡담을 나누었다. 그 부인은 정말 친절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학교에 다녔으며 내 형도 이 학교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묻길래 펜시에 다닌다고 말했다. 그 부인은 펜시는 참 좋은 학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그 부인의 그릇된 견해를 고쳐 주는 걸 간절히 원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 부인이 펜시가 참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백 살 가량 된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말한다는 것이 어쩐지 싫었다. 상대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할 테니 말이다.

얼마 후 그곳을 떠났는데, 정말 웃겼다. 그 부인이 내게 “행운을 빌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펜시를 떠날 때 스펜서 선생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이었다. 어디로 떠날 때 누가 내게 ‘행운을 빌어!’ 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질색이다. 그야말로 우울해지고 만다니까.

나는 올라올 때와 다른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곳 벽에도 ‘씹하자’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또다시 손으로 문질러 버리려 했지만 이번

에는 칼 같은 것으로 새겨져 있어 지울 수 없었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가령 1백만 년을 걸려 지우려 다닌다 해도 온 세계의 ‘씹하자’라는 낙서의 반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운동장의 시계는 아직 열한시 사십분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피비와 만날 때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는 어쨌든 박물관까지 걸어갔다.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중에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서부로 떠나기 전 제인 갤러허에게 전화나 걸어 볼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가 과연 집에 돌아왔는지가 확실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박물관까지 가서 그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내가 박물관 입구 바로 안쪽에서 피비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 있을 때 조그만 어린애 둘이 내 곁으로 와서, 미라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 중 한 아이의 바지 앞이 열려 있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해 주었더니 그애는 내게 질문하던 그 자리에서 그냥 단추를 채우는 것이었다. 기둥 뒤라든가 그럴 만한 곳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어느 때 같으면 웃었을 테지만 웃으면 다시 토하지나 않을까 겁이 났다. “미라는 어디 있나요? 알고 있으세요?” 하고 그 아이가 다시 물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상대로 잠깐 농담을 나누었다. “미라라니? 그게 뭐지?” 하고 내가 한 아이에게 물었다.

“모르세요? 미라 말이에요. 그 죽은 것 말이에요. 툰(toon) 속에 있는.”

툰이라니? 여기엔 손 들고 말았다. 그애는 무덤(tomb)의 뜻으로 말한 것이었다.

“너희들은 왜 학교에 가지 않았니?”

“오늘은 수업이 없어요.” 처음부터 말하고 있던 놈이 또 대답했다. 그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건 틀림없었다. 그러나 피비가를 때까지 달리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라 있는 곳을 찾아 주기로 했다. 전에는 미라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박물관에 와본 지도 여러 해가 된 상황이었다.

“너희들은 미라가 그렇게 재미있니?” 하고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네 친구는 말할 줄 모르니?”

“이 앤 친구가 아니고 내 동생이에요.”

“말을 못하니?” 나는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이 쪽을 바라보며 “넌 전혀 말을 못하니?” 하고 물었다.

“아뇨.” 하고 그애가 말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드디어 미라가 있는 장소를 발견하여 우리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너희들,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파묻는지 아니?” 하고 내가 한 아이에게 물었다.

“몰라요.”

“그럼 가르쳐 줄게. 이걸 참 재미있단다. 비밀의 약을 바른 형상으로 죽은 사람의 얼굴을 싸는 거야. 그렇게 하면 무덤 속에 몇천 년 파묻어 놓아도 얼굴이 썩지 않거든. 그 방법은 이집트 사람 이외엔 아무도 몰라. 현대 과학도 말야.”

미라가 있는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파라오의 무덤에서 가져온 돌이 양쪽에 쌓여 있는 아주 좁은 복도 같은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곳은 유명이 나올 것 같은 기분 나쁜 곳인데 내가 데리고 간 두 수재들은 그다지 재미있어 하지 않았다. 그애들은 내게 찰싹 달라붙어 있다가 전혀 말을 하지 않다시피 하던 애가 자기 형에게

“우리 가자. 난 벌써 다 봤어.” 하고 말하고는 온 길을 되돌아 달아나 버렸다.

“동생은 겁이 많아요.” 하고 말하고 나서는 “안녕.” 하고 형도 돌아서서 도망쳐 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나는 무덤 속에 혼자 남게 되었다. 어쩐지 난 그 상태가 좋았다. 참으로 아늑하고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벽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돌이 쌓여 있는 바로 밑, 그러니까 벽의 유리 부분인 밑에 빨간 크레용 같은 것으로 ‘씹하자’라고 쓰여 있었다.

문제 중의 문제다. 아늑하고 평화로운 장소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 그런 곳은 없으니까.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 가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서 누군가 살그머니 바로 코 밑에다 ‘씹하자’라고 써 놓고 간다. 이따금 시험해 보라. 내가 죽어 무덤에 파묻히고, 비석 따위가 세워져 그 위에 ‘홀든 콜필드’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나면, 어느 해에 나서 어느 해에 죽었다는 날짜 바로 밑에 누군가 슬쩍 ‘씹하자’ 하고 써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건 단언할 수 있는 일이다.

미라실에서 나오자 화장실에 가야만 했다. 나는 약간 설사를 하고 있었다. 설사는 대단하지 않았지만 연이어 다른 일이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문에 닿기 직전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래도 운이 좋았다. 바닥에 쓰러지면서 앞으로 쓰러졌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것이다. 웃기는 것은 아찔해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쓰러지는 바람에 팔이 좀 아팠지만 어지럼증은 없었다.

그때가 12시 10분경이었기 때문에 나는 문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서 피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비를 만나는 것도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살불이를 만나는 일 말이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몇 해 동안은 어려울 것이다. 서른 다섯 살쯤 되면 돌아오게 될지 모른다. 그것도 누군가 병에 걸려 죽기 전에 나를 보고 싶어할 경우일 것이다. 그런 일이 없는 한 나는 오두막을 버리고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되돌아올 때의 광경까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극도로 흥분해서 분명히 울기 시작할 것이다. 오두막에 돌아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애원하겠지만 나는 기어코 돌아갈 것이다. 극히 냉정한 태도로 말이다. 나는 어머니를 달래어 진정시키고는 거실 저쪽으로 가서 담배 케이스를 집어들고 담배에 불을 당긴다. 지극히 냉담하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혹시 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라고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꼭 와달라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비에게는 여름방학이나 크리스마스 휴가나 부활절 휴가 동안 내게 놀러 오게끔 한다. 또한 D.B.에게는 집필하기 위해 아담하고 조용한 집이 필요하다면, 잠시 나를 찾아오게 한다. 내 오두막에서는 단편이나 소설은 쓸 수 있지만 영화 시나리오는 쓸 수 없다. 또 나를 찾아온 이상 누구도 엉터리 짓은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누구든 엉터리 짓을 하면 당장 쫓아 내기로 한다.

체크룸에 있는 시계는 벌써 1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늙은 부인이 다른 부인에게 내 편지를 피비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은 태워 버리라는니 하는 따위의 지시를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걱정스러워졌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피비를 만나고 싶었다. 그애의 크리스마스 용돈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밖으로 나가서 돌계단을 내려가 피비를 맞이하러 갔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피비가 여행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침 5번가를 횡단하고 있었는데, 큰 여행가방을 질질 끌다 시피 하면서 들고 오고 있었다. 아니 질질 끌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가까이 가 보니 그것은 내 헌 여행가방이었는데, 내가 후턴에 다닐 때 쓰던 것이었다. 그 가방을 어찌할 셈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안녕.” 하고 피비는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다. 이런 미친 가방을 가져오느라 숨을 헐떡이고 있다니.

“내가 오지 않는 줄 알았어.” 하고 내가 말했다. “그 가방에 뭐가 들어 있니? 난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이대로 떠날 테니까. 역에 맡겨 둔 가방도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야. 대체 무엇이 들어 있니?”

피비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내 옷이야.” 하고 피비가 말했다. “나도 오빠하고 같이 갈 테야. 괜찮아?”

“뭐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졸도할 뻔했다. 정말 그랬다. 어지러웠다. 나는 또다시 기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찰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뒤편 엘리베이터로 내려왔어. 무겁지 않아. 안에 든 것은 드레스 두 벌과 모카신과 내의와 양말, 그리고 그 밖의 몇 가지뿐이야. 들어 봐, 무겁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 봐. 같이 가도 되지? 오빠, 괜찮지?”

“안 돼, 닥쳐.”

나는 기절할 것 같았다. 나는 피비에게 닥치라고 말할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왜 안 돼? 오빠, 부탁이야.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따라가기만 할게. 그뿐이야. 옷도 오빠가 가져가지 말라면 안 가져갈게. 다만 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너는 가지 않을 거니까. 입을 닥쳐!”

“오빠, 부탁이야. 나도 갈래. 정말이야. 난 오빠에게 조금도……”

“넌 가지 않을 거야. 이제 입을 닥쳐. 그 가방은 이리 내놔.” 이렇게 말하고 가방을 피비에게서 받았다. 나는 피비를 한 대 갈길 뻘뻘했다. 한순간 그애를 때려 줄까도 생각했다. 정말 그랬다.

피비는 울기 시작했다.

“너는 학교 연극에 나가기로 되어 있지 않니? 그 연극에서 베네딕트 아놀드 역을 맡았잖아?” 하고 나는 말했다. 심술궂은 말투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연극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야? 연극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야?” 하고 말하자 피비는 더욱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별안간 나는 피비의 눈이 툭툭 붓도록 그애를 울리고 싶어졌다. 그애가 밉기까지 했다. 만일 나와 함께 간다면 그애는 연극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그애가 미웠다.

“자아, 가자.” 하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는 박물관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내 계획은 그애가 가져온 그놈의 가방을 휴대품 보관소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그러면 방과 후 3시경에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애가 그 가방을 든 채 학교에 갈 수는 없었다. “자아, 가자.” 하고 나는 다시 말했다.

그러나 피비는 내 뒤를 따라오려 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올라가서 휴대품 보관소에 가방을 갖다 맡겼다. 피비는 여전히 보도 위에서 있었는데, 내가 옆으로 다가가자 휙 돌아서 버렸다. 피비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아이였다. 하고자 하면 사람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었다.

“난 아무 데도 가지 않아.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고 내가 말했다. 우스운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자 피

비가 울음을 그쳤다는 것이다. 나는 “자아, 학교까지 데려다 주마. 자, 어서, 늦겠다.” 하고 말했다.

피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애는 허락하지 않았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 뿐이었다.

“점심 먹었니? 아직 안 먹었지?” 하고 내가 물었다.

피비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애는 내가 주었던 그 빨간 사냥모자를 벗어서 내 얼굴에다 팽개쳤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이젠 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모자를 집어 내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자, 가자.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내가 다시 말했다.

“학교에 돌아가지 않을 테야.”

그애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2, 3분 동안 잠자코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이다.

“학교에 돌아가야 돼. 연극에 나가고 싶지 않니? 베네딕트 아놀드역을 하지 않을 거야?”

“안 해.”

“아냐. 하고 싶을 거야. 틀림없이. 자, 같이 가자.” 하고 내가 말했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나는 집으로 갈게. 네가 학교로 돌아가면 나는 곧 집으로 돌아갈 테다. 우선 역에 가서 짐을 찾는 다음 곧장……”

“학교엔 가지 않겠다고 했잖아? 오빠는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학교엔 돌아가지 않을 테야.” 하고 피비가 말했다.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그애에게서 잠자코 있으란 말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무서웠다. 정말 무섭게 들렸다. 욕 먹는 것보다 더욱 무서웠

다. 그애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어깨에다 손을 얹으려 하면 뿌리치고 마는 것이었다.

“그럼 산책 좀 할까?” 하고 내가 물었다. “동물원까지 산책하지 않겠니? 오늘 오후에는 학교에 가는 것은 그만두고 산책이나 하자. 그러면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겠지?”

피비가 대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되풀이해서 말했다. “오늘 오후에 학교를 땡땡이치고 산책이라도 좀 하면 그렇게 고집부리지는 않겠지? 내일은 착한 애가 되어 학교에 가겠지?”

“갈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몰라.” 하고 피비가 말했다. 그러고는 길을 건너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었다. 자동차가 오고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마구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애는 이따금 미치광이가 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뒤쫓아가지 않았다. 그애가 내 뒤를 쫓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거리의 공원 쪽, 그러니까 동물원을 향해 시내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피비는 내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곁눈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동물원까지 걸어갔다. 곤란했던 것은 2층 버스가 지나갈 때였다. 길 건너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피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동물원 앞에 왔을 때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피비, 나 동물원에 들어간다. 너도 와!” 피비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 소리를 들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동물원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다보았다. 아니나다를까 피비는 길을 건너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날씨가 저지 같아서 동물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물개

가 노는 연못가에는 그래도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쳤지만 피비는 발을 멈추고 물개가 먹이를 받아 먹는 것을 바라 보았다. 어떤 남자가 물개에게 고기를 던져 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피비와 합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애 어깨에다 손을 얹으려 했다. 그러나 피비는 무릎을 굽히더니 내 손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었다. 그애는 하고자 하면 망나니처럼 군다. 물개가 먹이를 먹는 동안 피비는 줄곧 그곳에 서 있었다. 나도 바로 뒤에 서 있었지만 다시는 그애 어깨 위에 손을 얹으려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피비가 정말 내게서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어린애란 정말 우습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처신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개 옆을 떠나서도 피비는 나와 나란히 걸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서 걷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피비는 인도의 저편을, 나는 이편을 걸어간 셈이다. 그다지 좋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1마일이나 떨어져 걷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우리는 곧 조그만 언덕 위에 곰이 있는 곳에 가서 잠시 있었는데, 그곳에는 볼 게 별로 없었다. 단 한 마리의 북극곰이 바깥에 나와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한 마리의 갈색 곰은 굴 속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엉덩이가 조금 보였을 뿐이다. 내 옆에는 카우보이 모자를 귀 아래까지 깊숙이 눌러쓴 어린아이가 서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저 곰을 밖으로 끌어내, 응? 끌어내 줘.” 하고 자꾸만 졸라대고 있었다. 피비를 쳐다보았지만 피비는 웃지도 않았다. 어린애가 화나 있는 것은 곧 식별된다. 웃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곰 있는 데를 지나 동물원을 빠져 나왔다. 그러고는 공원 안의 오솔길을 건너갔다. 그리고 언제나 오줌 냄새 같은 냄새가 나

는 조그만 터널을 통과했다. 그것은 회전목마가 있는 곳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피비는 아직 내게 말을 건네진 않았지만 이제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비의 외투 뒤에 있는 벨트에 손을 댔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에마져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손 대지 마.” 피비는 아직도 내게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은 상태는 아니었다. 어쨌든 우리는 회전목마가 있는 곳에 점점 가까이 갔다. 그러자 언제나 그렇듯 그 멋진 음악이 들려왔다. 「오 매리!」라는 곡이었다. 50년 전 내가 어렸을 때에도 그 노래가 연주되고 있었다. 이것이 회전목마의 좋은 점이다. 밤낮 똑같은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 말이다.

“겨울에는 회전목마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고 피비가 말했다. 피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게 화를 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마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럴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화내기로 한 것이 다시 생각난 모양이었다.

“너 목마 타고 싶니?” 하고 내가 물었다. 그애가 타고 싶어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피비가 더 어렸을 때에 엘리와 D.B.와 나는 피비를 데리고 공원에 자주 갔었다. 그애는 회전목마에 사족을 못 썼던 것이다. 목마에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난 너무 커.” 하고 피비가 말했다. 나는 그애가 대답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아냐. 그렇지 않아. 자, 타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 내가 말했다.

그때 우리는 회전목마 있는 곳에 당도해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대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바깥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매표구로 가서 표 한 장을 사서 는 돌아와서 표를 피비에게 주었다. 피비는 바로 내 곁에 서 있었다. “자.” 하고 내가 말했다. “잠깐…… 나머지 네 돈도.” 나는 피비가 내게 빌려 준 나머지 돈을 돌려 줄 참이었다.

“가지고 있어. 내 대신 가지고 있어.” 하고 피비가 말했다. 그리고 는 곧이어 “제발!” 하고 말을 이었다.

누가 제발이라는 말을 하면 난 우울해진다. 상대가 피비진 누구건 마찬가지다. 정말 그 말은 사람을 울적하게 만든다. 나는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오빠 안 타?” 하고 피비가 내게 물었다. 그러고는 우스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제 뽀로통한 표정이 아니었다.

“다음에 탈게. 네가 타는 걸 구경하겠어.” 하고 말했다. “표 가지고 있니?”

“응.”

“그럼 가봐. 난 이 벤치에 있을 테니. 네가 타는 걸 구경이나 해야겠어.”

나는 벤치로 가서 앉았고 피비는 회전목마 있는 곳으로 가서 올라 섰다. 그러고는 한 바퀴 돌아보았다. 걸어서 목마들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커다란 갈색의 낡은 목마에 올라탔다. 그러자 목마는 회전하기 시작했고 나는 돌아가는 피비를 지켜보았다.

피비말고 목마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대여섯 명밖에 없었다. 연주 되는 곡은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라는 것이었는데 재즈 식으로 아주 우습게 연주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공짜로 한 번 더 타기 위해 황금의 링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피비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피비가 그러다가 목마에서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어린애들이 황금의 링을 잡으려 할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말도 해서는 안 된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다.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회전이 끝나자 피비는 목마에서 내려 내게로 왔다. “이번엔 오빠도 타 봐.” 하고 피비가 말했다.

“아냐. 난 널 보고 있겠어. 난 보기만 할래.” 하고 내가 말했다. 나는 피비에게 돈을 줌 주었다. “자, 표를 몇 장 더 사라.”

피비는 돈을 받고 나서 “이젠 오빠에게 화내지 않을 테야.” 하고 말했다.

“알았어. 어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걸.”

그러자 피비는 느닷없이 내게 키스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애는 손을 내밀며 “비야, 비가 오기 시작해.” 하고 말했다.

“알고 있어.”

그런 다음 그애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빨간 사냥모자를 꺼내더니 내 머리에다 씌워 주는 것이었다. 난 여기엔 손 들고 말았다.

“넌 필요없니?” 하고 내가 물었다.

“오빠가 잠깐 써도 돼.”

“알았어. 이젠 빨리 가봐. 놓치겠다. 너 목마에 못 타겠다.”

그래도 피비는 서성대기만 했다.

“아까 말한 것 정말이야? 정말 아무 데도 안 가? 나중에 진짜로 집에 가겠어?” 하고 피비가 내게 물었다.

“그럼.” 하고 나는 말했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나는 피비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사실 나중에 집으로 갔으니까. “자, 어서.” 하고

내가 말했다.

피비는 달려가서 표를 사더니 목마로 되돌아갔는데, 회전목마가 움직이기 직전이었다. 그리고는 빙 돌아가서 자기 말을 찾아 올라탄 뒤에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런데 비가 미친놈처럼 오기 시작했다. 이건 물통을 들이붓듯 억수로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부모들, 그러니까 어머니건 누구건 모두 다 젖을까봐 회전목마의 지붕 밑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꽤 오랫동안 벤치에 그냥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꽤 젖고 말았다. 특히 목 근처와 바지가 더 젖었다. 사냥모자가 좀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흠뻑 젖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았다. 피비가 목마를 탄 채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자 나는 갑자기 행복을 느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큰 소리로 마구 외치고 싶었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여하튼 피비가 파란 외투를 입고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건 너무나 멋있었다. 정말이다. 이걸 정말 보여 주고 싶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집에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했으며, 어째서 병이 생겼으며, 병원을 나오면 다음 학기에 어느 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까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다. 정말 전혀 기분이 나지 않는다. 당장은 그런 것에 별 관심도 없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곳 병원에 있는 정신분석 전문의가 그러는데, 이번 9월부터 학교에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하겠느냐고 자꾸만 묻는다. 내 생각에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다.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나야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다.

D.B.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붓는다. 지난 토요일이다. 그가 지금 쓰고 있는 새로운 영화에 출연할 영국 여자와 함께 차를 몰고 왔었다. 그 여자는 꾸밈이 많은 여자이긴 했지만 굉장한 미인이었다. 그 여자가 다른 병동에

있는 화장실에 간 사이에 D.B.는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여기에 등장시킨 사람들이 지금 내 곁에 없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것뿐이다. 예컨대 스트라드레이터와 애플리마저 그림다. 그놈의 모리스 녀석도 그림다. 우스운 이야기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을 하면 모든 인간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